교육부

5개 지역 214교운영

올해 첫발을 내딛는 늘봄학교 3월부터 운영시작

늘봄학교 시범운영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인천광역시교육청** 30개교

- 이른 시간 등교에도 독서교실,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 운영

✓ **대전광역시교육청** 20개교

- 1학기 동안(3~6월)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새봄교실」 운영

✓ **경기도교육청** 80개교

- 지원형(일반학교형), 지자체 협력형,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나누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전라남도교육청** 43개교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기초학력·지역특화·문화예술 등 「미래형·전남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경상북도교육청** 41개교

- 농·어촌지역(농·어번기 저녁돌봄 집중 제공 등), 도시지역(아침·오후돌봄 확대 등) 특성에 적합한 모델 운영

※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

교육부

행복교육 2023년 03월

특집 - 국가 책임교육의 출발, 유보통합

행복한 교육

03

vol.488 2023 MARCH

02 네 꿈을 펼쳐라
"모든 인생은 역사가 된다"

06 에듀피플
학교폭력 예방은 아픔을 공감하는 훈련에서 시작

56 이야기 인문학
갈등을 관리하는 최선의 길

교육부

행복한 교육

03

vol.488 2023 MARCH

COVER STORY

서울송파위례유치원(원장 오경미)은 '모든 유아가 마음껏 놀면서 행복하고 존중받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 특수아 등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유치원에서 놀이를 통한 몰입과 쉼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진은 유치원 초록풀잎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발행일 2023년 3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편집인 대변인 김천홍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신광수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배선연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객원)김혜진, 이경화, 정성경, 김수연
사 진 김경수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집

국가 책임교육의 출발, 유보통합

16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보통합'
20 위례아이숲어린이집, 서울송파위례유치원 탐방!
26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다
28 유보통합으로 '책임교육·돌봄' 실현
32 해외에서는 어떻게 유아교육·보육이 이뤄질까?

02 **네 꿈을 펼쳐라**
괴산군 청소년문화의집 봉사동아리 '은가비'
"모든 인생은 역사가 된다"

06 **에듀피플**
김경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학교폭력 예방은 아픔을 공감하는 훈련에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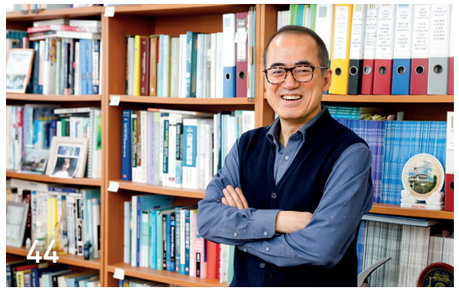
10 **교실혁명**
환경과 융합한 지리 교과캠프
'우리 동네 에코매핑'

36 **교육웹툰**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38 **교육자치시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단위 '함께 돌봄'으로 교육복지 실현

42 **이달의 교육뉴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 外

44 **진로직업인**
로봇 윤리학자_ 김종욱 동아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로봇에게 윤리란 필수 불가결한 일이죠"



48 **교육포커스**
3년 만에 벗은 마스크, 이젠 소통이 필요한 때

52 **일상의 쉼표**
다산 정약용과 강진 백운동 원림이 차로 맺은 인연

56 **이야기 인문학**
갈등을 관리하는 최선의 길

58 **현장중계**
2023 학교 환경교육 국제 콘퍼런스

60 **명예기자 리포트**
저자 인세 기부, 체육 선생님들의 선한 영향력 外

64 **예쁜 우리말**
'댕댕이'는 '커엽'다

글 편집실 **사진 제공** 괴산군 청소년문화의집

괴산군 청소년문화의집 봉사동아리 '은가비'

"모든 인생은 역사가 된다"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우리도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것을 일깨워 준 책을 만들어 감동을 전한 괴산군 청소년문화의집 봉사동아리 '은가비'. 지난해 말 은가비는 옆집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만든 <길 위에 삶을 풀어놓다>를 발간했다.

1

이웃 어르신 자서전 제작해 관심 집중

"인터뷰하려고 어르신을 찾아뵈었는데 잘한 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의 자서전을 써준다고 하니 고맙다고 좋아해 주셔서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괴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서재범 학생은 연구희 어르신을 인터뷰하기 위해 만났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서전에 수록된 연구희, 윤명순, 신국호 어르신은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온 평범한 어르신이다. 모두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공공 근로를 하거나 외부 환경정화 등을 도와주는 분으로 선정했다.

올해 졸업한 학생들을 포함한 12명의 괴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해 겨울이 되어서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부원들은 총 3개 조로 나뉘어 진행했다. 편집자를 맡았던 괴산고등학교 2학년 강지원 학생은 "당시 3학년 선배님들이 많았는데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인터뷰 약속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고 떠올렸다.

동아리를 담당하는 이상훈 지도사는 "자서전 기획부터 인터뷰, 원고 작성, 편집까지 모두 학생들이 자기 주도 프로젝트로 진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 질문지를 만들어서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질문하는 부원들도, 대답하는 어르신들도 모두 처음인 상황에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2

어르신들의 단편적인 답변을 글로 풀어내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숲속의 책방 백창화 동화 작가의 도움이 컸다고 밝혔다. 부원들은 조별로 인터뷰할 때마다 녹음과 동영상 촬영을 함께 진행하고 그 후에 회차별로 기록, 초안을 작성한 뒤 백 작가의 첨삭 지도를 받으며 원고를 작성해 나갔다. 어르신들의 사진 대신 캐리커처를 넣으면 좋겠다는 부원들의 아이디어는 자서전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 포인트가 되었다. 캐리커처는 괴산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활동 중인 괴산고등학교 3학년 박세정 학생이 맡았다.

서재범 학생을 은가비로 이끈 장본인이기도 한 괴산고 졸업생 김유미 학생은 신국호 어르신 취재 후기를 통해 '어르신이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은 도덕 교과서나 지식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보다 가족을 더 생각하며 희생과 헌신

1 괴산고등학교 3학년 박세정 학생이 그린 어르신들 캐리커처
2 괴산고 학생들이 옆집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펴냈다.

윤명순 어르신 자서전 전달

으로 살아오시면서 지금의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지도사는 "학생들이 처음 기획했을 때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고 어르신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의도였다."라고 설명했다. 강지원 학생은 "어르신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우리 세대와 다르지만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말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매년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해

괴산군 청소년문화의집 봉사동아리 '은가비'는 지난 2014년에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만, 실제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이다. 소외 대상 주택 환경개선 활동과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해오다가 동아리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은가비로 재탄생했다. 은은한 가운데 빛을 발하라는 동아리 이름처럼 은가비는 매년 다른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역에 봉사해 왔다.

지난 2020년에는 재활용 키트를 만들고 설명서를 영상으로 제작해 지역아동센터에 나눠준 녹색세상 프로젝트와 건잠머리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 건잠머리 프로젝트는 지역주민들의 기부를 받아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 키트를 전달하고 사용설명서를 제작해 지원한 프로젝트다. 기부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컵, 에코백, 엽서 등 기념품을 전달했다.

2021년에는 블로그마켓을 운영해 보육원, 미혼모 가정 등 소외된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새 옷을 선물하는 '새옷활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지역에 평범한 어르신들을 위한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 텔레비전 뉴스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 지도사는 "3월에 동아리 부원 구성이 확정되면 다시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정하게 된다."라며 "올해도 노령인구가 많고 인구감소 지역인 괴산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세대 공감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라고 밝혔다.

괴산군 청소년문화의집에는 봉사동아리 은가비 외에도 2006년부터 운영되어 온 청소년운영위원회 '아띠', 토요일마다 플로깅(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는 환경정화동아리 '리틀 포레스트', 매주 수요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수학을 지도하는 교육봉사동아리 '수달'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밴드, 댄스 동아리 등이 있다. 이 지도사는 "아이들이 생기로 가득 찬 청소년들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동반자로서 늘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시점에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Mini Interview

강지원(2학년) 학생

동아리 부원들이 모두 오랫동안 애써왔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책을 받았을 때 정말 좋았다. 편집자를 맡아서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를 한 번 더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더 좋았다. 어르신들과 서너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할 때마다 손주 같다며 예뻐해 주셔서 그 시간이 더 기억에 남는다. 원래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은가비에서 활동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아이들,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많은 학생이 봉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보다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서재범(3학년) 학생

자서전 쓰기를 위해 어르신 댁으로 찾아뵈었을 때를 잊을 수가 없다. 모르는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눠 본 적도 없어서 긴장했을 우리를 손주 대하듯 다정하게 대해 주셨다. 또 어르신께서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뭉클했었다.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세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우리의 풍족한 삶에 기여한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다. 자서전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가 인터뷰에서 느꼈던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고 싶다. 어르신 두레학교와 연계해서 앞으로도 세대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박세정(3학년) 학생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모토로 미술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국제 청소년 포상제 과정을 진행하던 중 이상훈 선생님의 권유로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직접 그려드린 어르신들의 캐리커처가 수록된 책을 보았을 때 정말 뿌듯했다. 한편으로는 프로젝트 전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림을 그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세대 간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봉사활동이 힘들겠지만, 우리가 느꼈던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는 학생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글·사진 편집실

김경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학교폭력 예방은 아픔을 공감하는 훈련에서 시작

김경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은 교육학자로서 수능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장을 지낸 교육평가 전문가다. 2021년 서울교대에서 정년 퇴임한 이후에는 푸른나무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청소년 및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학교폭력은 곧 학생들의 공감 능력 상실에서 기인한다면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훈련을 그는 늘 강조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핵심은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훈련'이다.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이 다름 아닌 '학생들의 공감 능력 상실'에서 온다는 믿음에서다.

"푸른나무재단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학교폭력 중에서도 사이버폭력 유형이 전년 조사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영역이 바로 피해 학생의 일상회복이에요. 하지만 사이버폭력은 가해자에 대한 특정이 쉽지 않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이제는 사이버폭력 피해 보호 조치의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피해 구호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2021년 말 푸른나무재단(옛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에 부임한 김경성 이사장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 중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무엇보다 먼저 강조했다. 푸른나무재단의 주도하에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폭력 건수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런데 모바일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교육환경으로 점차 전환되면서 사이버폭력 피해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다.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역대 최고치

"곧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현재로서는 학교 현장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건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전교생이 참여하는 집합교육 형식보다는, 학급 단위의 좀 더 세부적인 교육과정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강사의 자격규정 명시도 필요하고요.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등 제도적 보완도 절실합니다."

학교폭력 위기상담 연간 5만 5,137명, 피해자와 가해자 간 화해·분쟁 조정 긴급출동 연간 9,437건. 이는 푸른나무재단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상담 지원 사례다. 또 2022년 전국 초·중·고 학생 6,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7%의 학생이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바 있다. 전년 대비 6.7%보다 늘어난 수치다.

최근의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폭력 문제는 종전 중·고교생 중심에서 벗어나 초등학교 저학년으로까지 저연령화 현상도 뚜렷하다. 피해 유형도 2022년 조사에서는 사이버폭력이 31.6%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언어폭력 20.8%, 따돌림 16.1% 순이다. 코로나19 시기의 비대면 원격수업에서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이후부터는 폭력 유형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유형도 차츰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다.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충분히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행동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계 형성

1 푸른나무재단에서는 피해학생전담센터인 위드위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재단 내 프로그램 운영 공간
2 전문 연구기관인 학교폭력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김경성 이사장

보다는 잘못된 친구 관계로 실패를 경험하는 사례가 늘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로써 갈등조절, 감수성, 성인지감수성 등의 다양한 경험이 감소하거나 학교폭력의 인지능력 수준이 낮아지면,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특히 언어폭력, 신체폭력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사업, '푸른 코끼리'

김 이사장은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과 관련, 2019년 서울교대 총장 재임 시절 겪은 아픈 이야기도 되돌아봤다. 이른바 '서울교대 남학생의 단톡방 사건'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예비교사들인 만큼 사회적으로도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였다.

"이 사태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이버공간에서 이성 교우를 대상으로 한 외모 평가나 성적인 표현들이 아무런 거리낌이나 어떠한 죄책감 없이 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총장으로서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고,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저 스스로 깊이 반성하게 한 사례였지요.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인지감수성 관련 교육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예방 교육까지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장 재임 시절의 이 사건은 교육학자인 그를 학교폭력 예방과 연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한 계기가 되었다. 2018년부터 고문으로 푸른나무재단과 첫 인연을 맺은 후 정년퇴임 이후인 2021년부터 이곳에 이사장으로 부임, 재능기부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푸른나무재단에서는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푸른 코끼리'로 명명된,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사업은 현재 교육부와 기업, 사랑의 열매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운영되는 장기프로젝트이지요. 또 플랫폼 기업과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도 운영하고요. 재단의 전문강사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을 위하는 헬프 프렌즈(위헬프)'도 우리 재단의 대표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김 이사장이 늘 강조한다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핵심은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훈련'이다.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이 다름 아닌 '학생들의 공감 능력 상실'에서 온다는 믿음에서다. 특히 '푸른 코끼리' 사업처럼, 친구들끼리 서로 돕는 친사회적 역량으로서 한국의 문화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등의 6가지 덕목을 정하여 실천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우리도 이제는 사이버폭력 피해 보호 조치의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피해 구호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2

전문 연구기관 '학교폭력연구소' 만들 예정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함께 정을 나누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입시라는 경쟁 시스템 안에서 반드시 이기고, 넘어서야 하는 대상으로 보다 보니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폭력성'을 표출하곤 합니다. 더욱이 학생들은 그 폭력으로 인한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채, 그 문화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재생산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예단빌딩 입구에는 푸른나무재단의 설립 취지가 그대로 묻어나는 문구가 또렷하다. '너는 내게 꽃이고, 나는 네게 꽂힌 거야.' 바로 이곳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상담전화 1588-9128), 피해 학생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치유, 학교폭력 화해 및 분쟁 갈등조정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재능기부로서 참여하고 있다. 또 재단은 2009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매년 글로벌 청소년 폭력 예방 네트워크와의 연계 및 교류도 활발하게 이어가는 중이다.

"푸른나무재단과 같은 NGO는 법 집행기관이 아니어서 학교폭력 피해자나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그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면에서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재단을 찾는 분들이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무한정의 도움을 요청할 때면,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애로를 동시에 느끼기도 합니다. 또 일부 NGO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인하여 후원자들이 감소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젊었을 때의 꿈이 교사였다가, 다시 그 예비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육학자가 되기로 했다는 김경성 이사장. 그동안 여섯 차례의 수능 출제위원을 비롯해 세 번의 채점위원장을 지낸 교육평가 전문가이기도 하다. 전국의 학교현장에 있는 후학이자 교사들에게는 "앞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폭력 예방'과 '인성교육'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앞으로 전문 연구기관인 학교폭력연구소를 설립, 공교육 안에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소개했다.

글·사진 정광윤 세종 두루고등학교 교사
2022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 나눔 지원단

환경과 융합한 지리 교과캠프

‘우리 동네 에코매핑’

최근 경제발전과 함께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그러한 관심이 깊게 반영된 것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쓰레기를 하나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카페에서 개인 컵으로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면 할인받는 사례가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환경에 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적용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실천 끝에 2022학년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운영한 중등 수업 나눔 지원단에서 환경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환경 수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표하기도 했다. 본 글에서는 다양한 환경 수업 중 ①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 처리되는지를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게 하고, 이를 지도화하는 수업, ② 학생들이 사는 동네와 학교 주변에 직접 나와 플로깅(Flogging)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플로깅 경로를 구글 마이맵에 표시하는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쓰레기의 여정 - 쓰레기 지도 만들기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생물이 아닌 이상 자연 분해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한 교과캠프에서는 이러한 쓰레기의 여정을 조사하여 지도화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 수업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모둠별 분담**: 먼저 쓰레기의 유형을 나누어 모둠별로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등 모둠 수에 따라 분류하여 모둠별로 담당하게 했다.

② **경로 조사**: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쓰레기 처리 방법과 경로를 조사한다. 그러나 아무런 기반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조사하기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요 사이트를 미리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보통 각 지자체 홈페이지(시청, 군청 홈페이지) 환경과 관련된 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다.

③ **지도화**: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지도에 표현하는 단계이다. 쓰레기의 경로를 잘 보이는 색으로 강조하고,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시설의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면 지도가 완성된다.

쓰레기 지도에 대해 발표하는 학생

02 플로깅맵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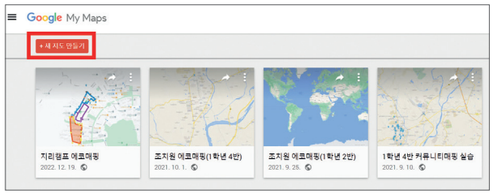
플로깅이란 '줍다'를 뜻하는 스웨덴어의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조깅을 뜻하는 'Jogging'의 합성어로,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친화적 신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을 주제로 하는 수업인 만큼 교실을 벗어나 직접 플로깅을 하면서 이를 지도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활동은 플로깅을 하면서 발견한 쓰레기를 촬영하여 구글 마이맵에 업로드하고, 학생들이 플로깅한 경로도 구글 마이맵에 표시하여 하나의 '플로깅맵'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이 활동은 최근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커뮤니티 매핑'을 다소 변형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진행한 교과 캠프에서는 앞서 언급한 구글 마이맵을 활용했는데,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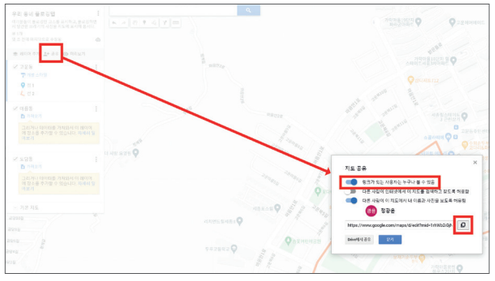
구글 마이맵 QR코드
(https://www.google.com/intl/ko/maps/about/mymaps)

2 지리 교과캠프에서 학생들이 제작한 플로깅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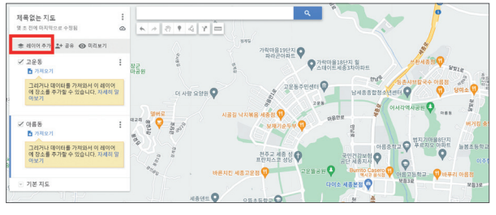
1 '새 지도 만들기'를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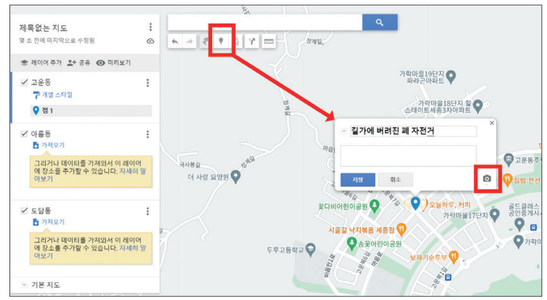
2 마이맵의 공유 설정을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학생들이 이 마이맵으로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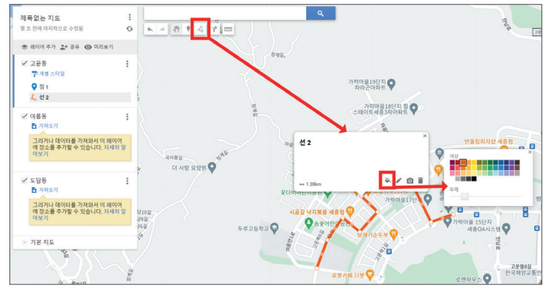
3 '레이어 추가'를 클릭하여 필요시 레이어를 추가한다. 모둠별로 하나의 레이어를 담당하여 매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마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특정 지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필요시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올릴 수 있다.



5 '선 그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선을 추가할 수 있다. 선의 색, 굵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



03 지리 교과캠프를 마치며

이번 교과캠프에서 마이맵을 활용해본 결과, 학생들이 마이맵을 다루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익히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다루기에는 조작이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다루는 것을 권장한다.

실제로 이번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러한 실질적인 활동들에 상당한 흥미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평소에 다니는 등굣길을 따라 플로깅을 하면서 쓰레기가 이 정도로 많이 버려져 있었다는 점에 한탄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힘들게 주운 쓰레기로 꽉 찬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학교에 복귀할 때 짓는 표정에는 뿌듯함이 묻어났다.

이 수업은 환경을 주제로 지리 교과캠프를 개설하여 환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정규 수업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수업이라면 얼마든지 변형·재구조화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수업 시간 등에 진행하면 알찬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 책임교육의 출발, 유보통합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교육부는 최근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새로운 통합기관을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격차 완화 과제를 추진한다.
새 통합기관의 명칭, 교사 자격, 교육과정, 설립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Special Theme

16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보통합'
20 위례아이숲어린이집, 서울송파위례유치원 탐방!
26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다
28 유보통합으로 '책임교육·돌봄' 실현
32 해외에서는 어떻게 유아교육·보육이 이뤄질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보통합'

우리나라 유아교육정책의 역사는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유아학교로의 유보통합 실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민간에서 시작한 유치원은 그간 학교로서의 공공성을 획득하면서 공교육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성장해왔다. 유아교육의 역사는 점차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대한민국 120년 유아교육 역사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는 과정

독일 프뢰벨식 유치원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의 학교제도에 안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유치원은 유아들이 마음껏 놀이하고 학습하는 '유아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1969년도부터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확립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우리나라 취학 전 교육과 돌봄의 수준을 높여왔고, 초등학교와 연계하는 공교육의 기반을 충실히 닦아왔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이 처음에는 만 3~5세의 중산층 자녀의 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시작했으나, 1949년 교육법을 근거로 교육부가 관할하게 되었고, 지금은 모든 유아를 위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유아학교로 발전해 왔다면, 동일한 만 3~5세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출발은 탁아와 보호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어린이집은 만 0~5세 취업모의 자녀를 보호하고 '탁아'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보건복지부 관할하에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교육의 기능도 포함하게 되면서, 두 기관의 유사성은 높아지면서 기관의 이원화는 더욱 공고해졌다.

이런 이원화 구조에서 동일연령의 만 3~5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중복관리되면서 부처 간, 기관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유보통합 정책은 이런 구조적 틈새에서 유아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논의되어왔다. 동일연령 유아에 대한 행정, 철학, 개념, 인력, 지원 등 제도의 차이가 나타나며<표 참조>,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이에 개입하는 핵심 관계자들 간의 정치적 아레나(Arena)에서 갈등, 경쟁, 협력, 통합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표 - 유아교육, 보육제도 비교

구분		유아교육	보육
소관부처		• 교육부	• 보건복지부
대상아동		• 만 3~5세	• 만 0~5세
입소기준		• 제한 없음(추첨)	• 취약계층, 맞벌이 등 실수요층 우선 입소
기 능		• 교육(주)·보호의 교육기관	• 보호(주)·교육의 사회복지시설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05.1.30)	• 영유아보육법('91.1.14)
운영일수		• 수업일수 180일 이상/연	• 연중무휴(공휴일 제외)
운영시간		• 09:00~13:00 - 교육은 4~5시간 내 탄력적 운영 - 방과후과정(보호자 선택, ~17시)	• 7:30~19:30(12시간 운영원칙) - 기본보육(7:30~16:00) - 연장보육(16:00~19:30) - 야간연장,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시설 유형		• 국공립/사립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민간/가정/협동
정부 지원보육료, 수업료 등 ('19년)		• 수업료 : 1.9조 원 * 3~5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총 : 11.2조 원 - 보육료 : 7.2조 원 * 0~2세 총 5.1조 원(국고 3.4조 원, 지방비 1.7조 원) ** 3~5세 총 2.1조 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질 관리		• 누리과정(3~5세)	• 표준보육과정(0~5세) • 3~5세 표준보육과정에 공통 누리과정 포함
		• 교육지원청	• 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 장학지도, 유치원 평가제	• 컨설팅, 어린이집 평가제
교사자격		• 학과제를 기본으로 자격부여(최소 전문대 졸)	• 학점제 관련 교과목 이수(3급은 최소 고졸)
교사 처우	교사 급여	• 국공립 336.4만 원, 사립 207.5만 원 * '14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기준	• (평균 213만 원) 국공립 250만 원, 민간 205만 원 * '18년 보육실태조사 기준
	처우 개선비 ('20년)	• 68만 원(담임) • 55만 원(비담임)	• 36만 원(3~5세 담임, 유특회계) • 24만 원(0~2세 담임, 국비·지방비) * 비담임 교사는 지원 없음
보육료·수업료 (월)	국공립	• 시도교육감이 물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3~5세 24만 원 + α	• 정부 규정 부모보육료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결정 (0세 47만 원, 1세 41.4만 원, 2세 34.3만 원, 3~5세 24만 원)
	민간	• 원장 자율 결정 (전년도 물가인상률 범위 내 원비 인상 제한)	• 기관보육료+부모보육료 지원,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보육료 추가 수납가능(3~5세)
비용지원		• (부모) 바우처 지원 • (국공립) 교사 등 인건비 100%, 시설 운영비 100% • (사립) 운영비, 교재교구비	• (부모) 바우처 지원 • (국공립, 법인) 건축·개보수비, 인건비 • (직장) 시설비 저리융자(1~2%), 인건비 • (민간, 가정) 기관보육료, 교재교구비
설치기준		• 시설임대: 불허 • 시설처분: 매도·담보 제공금지 • 설치위치: 1·2층 원칙 • 시설면적: 40명 이하~ 5×정원㎡, 41명 이상~ 80+(3×정원)㎡ • 체육장: 40명 이하(160㎡), 41명 이상(120+정원㎡)	• 시설임대: 제한 없음(단, 부채비율 50% 이하) • 시설처분: 제한 없음(단, 사회복지법인 매매 불가) • 설치위치: 1층 원칙(직장 내 또는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 전용인 경우 5층까지 허용) • 시설면적: 영유아 1인당 4.29㎡(놀이터면적 제외) • 보육실 : 영유아 1인당 2.64㎡ • 놀이터 : 영유아 1인당 3.5㎡(영유아 50인 이상 어린이집)

주: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보육의 쟁점과 과제. <표 II -2-3>를 재구성함.
자료: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체계. 내부자료

만 3~5세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면 의무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므로 유보통합은 필수적이다.

김영삼 정부부터 추진된 유보통합 정책은 교육부 '유아학교'로의 전환 정책에서 시작되었고, 교육부 유아학교로의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유보통합은 지난 30여 년간 논의되어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보통합 정책은 교육부 중심의 '유아학교' 정책이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만 3~5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유보통합 정책은 국가책임의 '유아학교' 체제 확립의 논의와 분리되어 이야기될 수 없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유보통합 정책은 교육과 돌봄 개혁의 정책의 창을 매번 열면서 정작 유보통합 자체는 실현하지 못했지만, 무상교육, 공공성 정책 등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생애 초기부터 차별 없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돌봄 체계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유보통합이 필요한 것일까? 한 마디로 생애 초기부터 장애-비장애 차별 없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돌봄 체계 구축이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먼저,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한 명 한 명의 영유아가 빛나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5년간은 저출산,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교육 신체제를 구축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국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유아학교 교원 양성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지원의 합리적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 동일연령의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향화된 교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권을 찾아주기 위해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학교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만 3~5세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면 의무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므로 유보통합은 필수적이다.

영유아단계 국가 책임교육의 실현, 유아학교와 공공성 강화정책이 핵심

유보통합은 유아학교 정책과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공공성이 강화된 유아학교, 내지는 영유아학교 체제 구축이 핵심과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단계에서 학교 정체성과 교원 시스템에 제대로 정비되어야 유-보가 미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다. 보육계는 만 0~5세 교육부 내 안정적 유보통합을 원하고, 유아교육계는 교육부 내, 0~2세/3~5세 연령별 이원화, 질적으로 상향화된 유아학교 체제를 원하고 있다. 양쪽의 주장들은 모두 실현할 수 있다. 소통이 원활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여나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 정부는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실행하여 단일부처 내 하나의 테이블에 유아교육과 보육을 올려놓는 데 일단 성공했다.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으며,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 또한 강하다. 유보통합의 역사성을 기반으로 영유아 최선의 이익 추구, 유아학교 체계 구축, 공공성 확립 등을 염두에 두고 핵심 참여자들과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정부가 기획한 영유아단계 교육개혁, 국가책임교육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상향화된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의 개편, 사회복지에서 교육체제로 변모하는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정책, 0~2세의 돌봄과 교육 체계 정립 등, 그간 유보통합 논의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왔던 과제들을 차근차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새로운 단계로 보다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위례아이숲어린이집

위례아이숲어린이집,
서울송파위례유치원 탐방!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한 첫 번째 자람터

서울송파위례유치원

서울송파위례유치원(원장 오경미)이 만 3~5세를 위한 유아학교라면, 위례아이숲어린이집(원장 하명희)은 영아부터 만 5세 유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한다. 최근 유보통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비슷한 듯 다르게 운영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을 다녀왔다.

1 위례아이숲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특별프로그램인 아기체육.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다.
2 위례아이숲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아이를 종일반에 맡길 수 있는 원동력은 교사에 대한 신뢰다.
3 어린이집에서 3세부터 5세까지 진행되는 누리과정. 어린이집에서는 유아발달과 성향에 맞춰 놀이와 교육이 이뤄진다.

오전 10시 30분, 위례아이숲어린이집 만 3세반 아이들이 조잘조잘 떠들면서 선생님과 친구의 손을 잡고 바깥나들이를 간다. 모처럼 따사로운 햇볕에 아이들은 더욱 신난다. 교실에 머문 아이들은 맛있게 간식을 먹는다. 서툴지만 숟가락으로 연신 달걀야채죽을 떠먹으며 함박 미소를 짓는다.

만 0~5세, '보육·교육' 책임지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아침은 7시 30분부터 시작된다. 특히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들은 이른 아침 출근과 함께 등원한다. 아이들은 오전 9시 50분부터 간식을 먹고 11시 50분까지 바깥놀이나 실내자유놀이를 한다. 이 시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오전 11시 50분부터 점심을 먹고 12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낮잠시간이다. 그리고 오후 간식을 먹고 자유놀이를 하다보면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기본보육반' 아이들은 하원하고,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반' 아이들을 위한 통합보육이 이뤄진다. 어린이집은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다.

저출산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위례아이숲어린이집은 교실마다 아이들이 넘쳐난다. 이곳에는 0세부터 만 5세까지 138명의 아이가 재원하고 있다. 24명의 보육교직원이 아이들을 돌본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0세부터 2세까지는 보육과정을,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을 진행한다. 0세반은 아이들 3명당 교사 1명이, 3세반부터는 아이들 15명당 교사 1명이 아이들을 돌본다. 위례아이숲어린이집에는 전문성을 갖춘, 경험이 많은 보육교사 외에도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유치원을 거쳐 이곳으로 온 선생님들이 많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은 '종일반'

2021년부터 위탁받아 구립 위례아이숲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하명희 원장은 26년간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생활을 한 경력자다. 그가 꼽은 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은 '종일반'이다.

하 원장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종일반이 있어 맞벌이 부모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특히 하 원장은 "흔히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만 이뤄진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적인 요소도 충분히 이뤄진다. 5세 이하 아이들의 경우 교육과 보육이 꼭 함께 이뤄져야 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치우치기보다 아이들의 성장과 상황에 맞춰 진행한다."라며 "우리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개인 성향을 파악해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라고 말한다.

세상에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영아부터, 취학 전 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기에 하 원장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교사들의 인성, 균형 잡힌 먹거리 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하 원장은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무엇을 먹었

유보통합시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 상향 평준화하고 재원을 통합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합니다

는지,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궁금한 건 당연하다."라며 "유아기에 배변훈련 같은 중요한 생활 습관들도 이뤄지기 때문에 '키즈노트'를 통해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고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하는 유아학교 '유치원'

오후 2시 30분, 서울송파위례유치원 만 5세반 아이들이 초록풀잎꿈동산에 삼삼오오 모여든다. 언어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 초록풀잎꿈동산은 다양한 책과 장난감, 블록들이 배치되어 있다.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동화 속 주인공을 따라 하는 친구를 보며 웃음을 터뜨린다.

지난해 개원한 서울송파위례유치원은 지상 4층에 옥상정원을 갖춘 공립유치원으로, 만 3세 2학급(32명), 만 4세 2학급(44명), 만 5세 3학급(72명)과 특수학급(4명)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들의 특성을 반영해 구성한 교실은 깔끔하면서도 키즈카페를 연상시킨다. 유아학교라는 말처럼 교실 외에도 강당, 휴게실, 보건실, 급식실, 조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148명의 아이를 33명의 교직원이 돌본다.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며 3세반은 한 명의 교사가 16명을, 4세반은 22명, 5세반은 24명의 아이를 가르친다.

서울송파위례유치원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13시간을 운영한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아침돌봄을 제공하고, 오전 9시부터 1시 30분까지는 누리과정인 교육과정을, 이후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해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유치원은 초등학교의 수업일수(매 학년 190일)처럼 법정 운영일수 180일 채우면 원장의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유치원, 질 높은 교육·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장점

서울송파위례유치원 오경미 원장은 30년 교직 경력 중 정책 전문가, 교육행정 전문가,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14년간 일한 교육 전문가다. 오 원장은 유치원의 특징 및 장점으로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질이 높고, 우수한 교육시설 및 교육 환경,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꼽았다.

오 원장은 "유치원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맞춰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수립해 창의적으로 특색있게 운영된다."라며 "교사도 교육부에서 엄격하게 정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해 유아 발달에 적합한 적정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을 통해서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경영에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서울송파위례유치원은 '모든 유아가 마음껏 놀면서 행복하고 존중받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 특수아 등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유치원에서 놀이를 통한 몰입과 쉼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민주적 조직문화도 만들어가고 있다.

오 원장은 "교육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이기에 열린 마음으로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늘 소통하며 질 높은 유아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유보통합, 정책 수혜자인 '유아'가 중심이 돼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명희 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이 최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다만, 진정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정책을 위한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통합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은데 복지나 처우가 좋다면 과연 그럴까 싶다."라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부모도 교사도 충분히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과정과 수준에서 유보통합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로 일원화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라는 오경미 원장은 "사실 영유아를 둔 학부모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 상향 평준화하고 재원을 통합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 원장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이해관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모든 정책 진행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라며 특히 "자격 기준 및 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반드시 관련 단체 등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해 무엇보다도 정책의 수혜자인 '유아'를 중심으로 의지를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4 서울송파위례유치원은 유아학교로 아이들을 위한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초록풀잎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5 계단을 오르내리는 매너부터 행복하고 존중받는 유아들로 교육하는 서울송파위례유치원

조하나

위례아이숲어린이집 학부모
(4세 김동욱, 7세 김도윤)

"유보통합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길…"

Q 위례아이숲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는?

이곳으로 이사온지 8년 차에 자녀가 3명이다. 처음엔 선착순 경쟁이 심했지만, 현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더 생기면서 선택의 폭이 커졌다.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알아봤는데, 어린이집이 아이를 맡기기에 편했다. 유치원은 보육보다는 교육기관의 느낌이 강했다. 학교 가기 전 연습이라 좋게도 생각해봤는데, 셋째가 생기면서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됐다.

Q 어린이집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큰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코로나19로 특별활동이 중단되면서 사교육을 이용할 일이 생겼다. 오히려 어린이집은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특별활동 등을 지속시켜줘서 너무 좋았다. 워킹맘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아이를 편하게 맡길 수 있고, 만족감이 더 높고 오히려 사교육을 안 하게 됐다. 그리고 선생님과 '키즈노트'를 통해 매일 아이들의 상황을 알 수 있어 좋다.

반면, 규모가 큰 구립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강당이 없다. 신도시의 단점 같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이곳에서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이 2곳이 있는데도 대기가 길다. 도시 환경에 맞는 교육시설과 인력충원이 되었으면 한다.

Q 유보통합에 대한 생각과 기대는?

유치원생 엄마들과 이야기해 보니 다들 교육과 보육, 교육 격차를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빨리 잠재워줬으면 좋겠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아이들을 위한 기관이라면 누구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인력 양성이나 인력 충원에 있어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먼저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면 그 혜택은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사교육도 줄어들고 엄마들이 편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되면 좋겠다.

"아이도 선생님도 행복한 유보통합이 되길…"

김정숙

서울송파위례유치원 학부모
(5세 조민규, 조민기)

Q 서울송파위례유치원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등원하기에는 거리의 측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거리 측면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보살필 수 있는 기관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고 서울송파위례유치원은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공립에 재직 중인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과 신규 단설 유치원으로서 우수한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선택하게 되었다.

Q 유치원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가까운 거리, 공립의 훌륭한 선생님, 단설 유치원으로서 우수한 시설 부분은 기대한 만큼 만족스럽다. 맛있는 급식과 충분한 양의 배식으로 아이들에게 만족을 주는 부분도 매우 좋다. 이외에도 옥상정원, 모래놀이, 캠핑놀이, 어항 등 시설을 통해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유치원이다. 공립유치원에서 이런 높은 수준의 체험을 제공해주는 부분도 자랑하고 싶다.

반면, 많은 부모들이 방과후과정반을 희망해도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우리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는 한 명의 선생님이 원생 약 20명을 돌보고 있다. 교육의 질과 안전을 위해서 교사 1명당 학생 수의 비율을 더 낮추면 좋겠다.

Q 유보통합에 대한 생각과 기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경험해 본 학부모로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러나 유보통합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만 3~5세의 경우 유치원에 갈 수도 있고, 교육량 또는 보육시간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부모들도 있다. 단순히 이원화된 체계에서 발생하는 모순의 해결, 기능적 통합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기관은 어떤 곳인지, 다각적으로 장점을 흡수한 유보통합이 되길 희망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아이와 선생님 모두 행복한 유보통합이 되었으면 한다.

글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으로 '책임교육·돌봄' 실현

최근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 2025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1·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살펴본다.

저출생 위기 속, 영유아단계 교육·돌봄은 시대적 과제

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 사회의 저출생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인 영유아단계부터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영유아 교육, 돌봄 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교육부, 복지부 등으로 나뉘어 관리·운영되는 체제에서는 지원 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여건이 달라 기관별 격차가 아동 간의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 체계로서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 내에 범부처 협업조직인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였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하며, 이외에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기구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한다.

유보통합 1단계('23~'24)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 마련

이러한 추진 기반 위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인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필요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선도교육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부모의 교육비·돌봄 부담을 낮춘다

또한,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유치원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누리운영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 원 이상, 전국 평균 기준, 13.5만 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부담 비용(사립유치원 기준, 2022.4.)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학부모 추가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동결되었던 돌봄지원비(유치원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누리운영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하여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야간연장, 휴일보육 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수립

유보통합추진단은 이를 위하여 2023년 하반기 중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뿐 아니라,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생애 초기부터 책임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보육 예산 등의 이관 등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여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의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자문단 논의 등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1단계 기간 중 마련해 나간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때,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표준보육과정(0~2세)·누리과정(3~5세)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은 안전 기준을 상향하되,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2023년 말에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2024년 말에 제시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2단계('25~)

교육청 중심의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

2단계인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령별 학급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유보통합의 핵심은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보통합은 기관 간 단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두 기관의 장점을 모두 녹여 교육, 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글 문미옥 서울여대 교수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해외에서는 어떻게 유아교육·보육이 이뤄질까?

우리나라는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2022년 합계 출산율 0.78을 기록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최근 유보통합 논의가 뜨겁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유아교육·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유보통합이 이루어진 나라도 있고 이원 체제인 나라도 있다.
30년간 추구해온 우리나라 유보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지금, 외국의 유보통합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교육부 유보통합의 사례로 전 세계적인 유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스웨덴'과 사립 혹은 민간 교육·보육기관 비중이 70% 정도라는 점이 우리나라 상황과 유사한 '뉴질랜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 대체로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하고 있다

OECD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라고 공식적으로 지칭하면서 영유아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을 권고 및 추구하고 있다. 2015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자료를 제공한 24개국 중 13개국에서 유보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뉴질랜드는 1988년, 스웨덴은 1996년, 노르웨이는 2006년, 덴마크는 2011년, 핀란드는 2013년에 이미 유보통합을 하였다.

통합의 형태와 정도를 살펴보면,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행정체계, 재정, 교육과정, 법, 교사, 기관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유보통합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 및 일본은 일부 영역이 통합된 부분 통합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3~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는 교육부, 3세 미만이 다니는 유아원은 '노동·사회·가정·연대 및 도시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이원 체제이면서도 기능적으로 두 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기능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 유아학교는 무상으로 공교육 학제에 포함되어 있고 100% 취원율을 보인다.

유보통합을 이룬 대부분의 국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

스웨덴, 유아~대학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 보건사회부→교육과학부로 일괄 이관

스웨덴은 1996년 유보통합이 되기 전까지 3개월~7세 아동을 위한 종일제 시설인 보육기관과 3~7세 아동을 위한 반일제 시설인 유치원이 각기 다른 뿌리에서 출발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처럼 애초부터 교육과학부와 보건사회부로 이원화된 시기는 없었으며, 재단, 교회, 개인 등 민간에서 시작한 유아교육과 보육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1944년부터 보건사회부에서 모두 관할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하며 1996년 주무 부서를 보건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관하였다.

교육과학부 이관은 부모와 유치원 및 보육기관 종사자는 물론이고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반발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교육과학부 이관의 성공 요인은 애초부터 부처가 이원화되었던 시기가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이관 과정은 보건사회부 직원이 교육과학부로 옮겨가는 행정기관 간의 임무 교대였기 때문에 국민에게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았다. 즉,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한 초점일 수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스웨덴, 보육기관·유치원 행정·인력·재정·규제·감사 등 통합

스웨덴은 유보통합을 이룬 국가 중에서도 주무 부처의 이관을 넘어, 가장 넓고 깊은 통합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즉, 행정 수준뿐 아니라, 인력·재정·규제 통합, 지역 수준에서의 조직 및 구조 통합, 국가와 지자체 감사의 통합으로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프리스쿨에는 원장 외에도 유아교사, 보조교사, 가정보육사 등 다양한 자격 유형을 갖춘 종사자들이 있다.

유아교사는 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에서 초등교사와 동일한 연한인 3년 6개월 동안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210학점(한국식 학제로 환산하면 140여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 제도(1년간)와

뉴질랜드

우리나라가 영유아에게 격차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고자 하는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직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지도자 제도(페다고지칼 리더)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 교실에 3명의 교직원이 한 팀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교육과정은 교육부 이관 후 1988년에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만들었으며 2010년도 개정에 이어 2018년도에 다시 개정되었는데 1998년도의 교육과정에 비해 교수라는 단어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전의 교육과정은 생활과 놀이와 학습이 위계 없이 결합하는 것이었는데 교사의 의도성이 내재한 학습의 비중이 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부처의 업무 '교육부'로 통합
유치원·보육시설의 반대가 컸던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1987년부터 1988년 사이에 광범위한 교육행정부의 개혁을 단행하여 교육부, 사회복지부, 마오리 담당부 세 곳에 분산되어 있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과 관리 책임을 1989년 교육부로 통합하였다. 보건사회부에서 일괄 교육과학부로 이관한 스웨덴과는 달리, 세 곳으로 분리된 유아교육과 보육행정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친 뉴질랜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 반대가 많았다. 사립기관은 공적기관이 사립기관을 대체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가정기반기관은 가족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교육부처가 적절치 않다고 우려하였다. 교사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자신들을 근로자로 부를지 교사로 부를지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과정을 거치며 교사모임을 결성하여 공동체 간 협력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부모 간에 긴밀히 협조하였다. 뉴질랜드에서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최고의 보육과 교육을 원하는 여성들에 의해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한다.

뉴질랜드는 행정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했으나 다양한 서비스 유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교육부 내에, 지역사회 기반의 유치원, 종일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센터, 가정에서 4명 이하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기반센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센터 등이 있다. 재정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유형을 통합하지는 못했지만, 다양성을 유지한 통합 유형을 취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아동을 중심으로 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뉴질랜드, 행정부처는 일원화
서비스는 '다양성 유지' 부모 선택권 보장

통합 초기의 교사자격제도는 통합 전 규정에 따라 2년 교육을 마친 기존 유치원 교사들은 3~4년 학위과정자여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2년 교육으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년의 훈련만 받은 보육 근로자들은 자격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학위를 새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뉴질랜드 교사 자격취득 과정의 순서를 살펴보면 첫째, 초기교사교육 제공 기관에서 3~4년의 유아교육 학사학위과정 또는 일반전공 학사졸업자를 위한 1년 3개월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 학위나 수료증을 받는다. 둘째, 초기교사교육 수료증 및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교직위원회에 신청하면 범죄경력이나 건강, 인성을 점검하여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6년 동안 유효한 임시교사자격증을 발급한다. 셋째, 임시교사자격증 소지자는 인가된 유아교육기관에서 2년간 멘토의 지도하에 평가과정을 거치며 근무한 후, 교직위원회에 신청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또한 이외에도 3년 유효기간인 실무자격증 제도를 두어 지속적인 평가에 의해 갱신하도록 한다. 실무자격증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며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교사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17년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은 다양한 관행을 존중하며, 각 연령에 대한 특정 목표를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몬테소리, 슈타이너 등의 다양한 교육 철학도 존중하므로 기관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실행하며 자신의 교육철학을 반영할 수 있다.

유보통합, '영유아' 중심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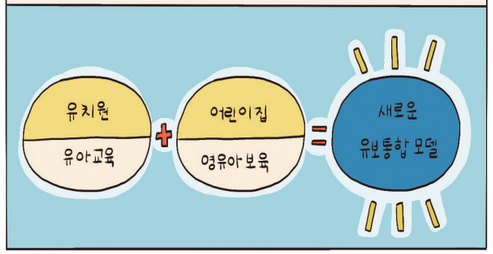
외국 여러 나라의 추세와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유보통합과정과 특징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유보통합 및 유아교육·보육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영유아에게 격차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고자 하는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스웨덴과 뉴질랜드 사례에서와 같이 유보통합은 자국의 상황에 맞아야 하며 관계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서로 간에 진정성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며 구체적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전제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영유아가 중심이되 관계자들의 모든 목소리를 진정으로 수렴하는" 유보통합 추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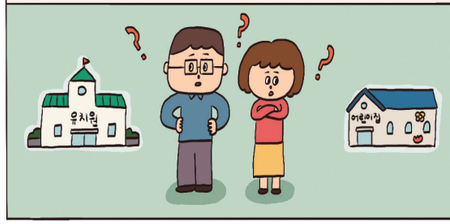
글 편집실 그림 이정화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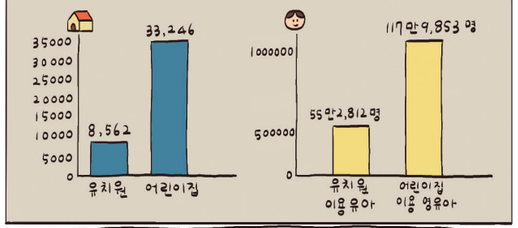
여러분! 유보통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유아교육(유치원)'과 '영유아보육(어린이집)'의 통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 0~5세, 즉 취학 전 영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두 기관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등 비슷한 점이 많지만, 어디를 다니느냐에 따라 받는 교육·돌봄의 서비스가 다르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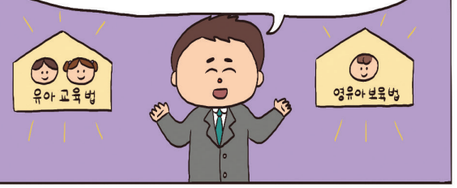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치원은 8,562개소로 55만 2,812명의 유아가 다니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3만 3,246개소로 117만 9,853명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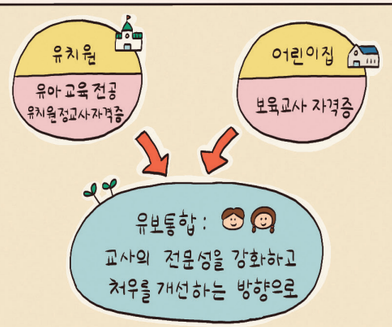
그렇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연령	만 3~5세	만 0~5세
근거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소관부처	교육부-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지자체
설립목적	교육 중심	보육 중심
자격체제	원장, 원감 교사 (1급2급)	원장 교사 (1급·2급·3급)

먼저,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중심의 기관으로,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반면, 어린이집은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 중심의 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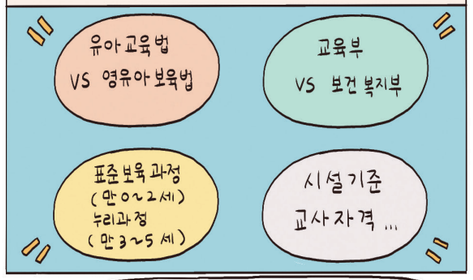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는 방법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유치원 선생님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대학 외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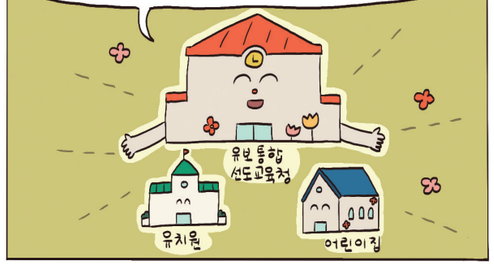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두 기관은 근거 법령과 관리 부처, 선생님이 되는 자격 요건, 시설기준 등이 다른데요.



유보통합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영유아 시기(0~5세)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와 자문단 등의 논의를 통해 교사 자격·양성 체계, 시설 기준등을 포함한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하여 급식비 균형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올해 하반기,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통합기반을 마련합니다.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새로운 통합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고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을 논의하며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표준보육과정(만 0~2세)과 누리과정(만 3~5세),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글 편집실 **사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기관 후원 전달식

학교 단위 '함께 돌봄'으로 교육복지 실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교육복지를 지원하는 '학교 혼디거념팀'을 구성해 정서위기, 학습장애, 방임 등 복합적 위기요인을 지닌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통합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앞두고, 제주도교육청의 우수 운영 사례를 조명해 본다.

학교 혼디거념팀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 T/F 구성 및 운영 - 권역별 학교 현장지원단 구성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교감 힐링연수(도내 전체 학교 교감 대상)

제주어인 '혼디거념'은 '함께 돌봄'이란 뜻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의 의미로 '혼디거념팀'을 구성했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혼디거념팀'

"개학 후 일주일간 지켜본 가영이(가명)는 내가 전에 알던 아이가 아니었다.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이었지만 붙임성이 좋고 애교가 많았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상담을 통해 겨울방학 중 발생한 어머니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 생업과 맞바꾼 힘든 재활을 곁에서 지켜보며 가영이 특유의 생기와 웃음을 잃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다. 교감 선생님께 가영이 사정을 말씀드리자, 다음날 '혼디거념팀'이 긴급 소집되었다. 교감, 복지부장, 보건교사, 교육복지사가 함께 모여 가정방문, 긴급복지꾸러미, 반찬지원 등을 논의하였고, 재활 기간 정기적 지원과 사례관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은 한층 밝아진 가영이와 어머니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 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 학생복지팀 김희선 사무관의 기고문 중

제주어인 '혼디거념'은 '함께 돌봄'이란 뜻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의 의미로 '혼디거념팀'을 구성했다. 학교 내 교직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복합적 위기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단위 교육복지 지원 조직이다.

이전의 교육복지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각각 추진이 되었다. 따라서 학생을 중심으로 세심한 진단을 통해 필요한 교육복지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의 중복 지원, 비효율적 예산 운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제주도교육청도 학급 담임 수준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정서위기, 학습장애, 학교 부적응, 경제적 빈곤, 결손 가정 환경 등 복합적인 위기요인을 가진 학생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 대책 마련과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2016년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7년 학교 내부적인 지원 체계인 '학교 혼디거념팀'을 탄생시켰다.

'혼디거념팀'은 제주도교육청이 설계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며, 올해부터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학교-마을-가정-학생을 잇다

제주도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혼디거념팀'이라는 교육복지 조직을 구성해 사업별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의 위기요인이 무엇인지 우선 혼디거념팀 회의를 통해 확인한다. 담당자별 지원 역할이 명확해 맞춤형으로 통합지원이 이뤄지면서 학생의 문제요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만족을 끌어내고 있다.

지원 과정은 먼저, 준비단계로 전년도 위기 학생 파악 →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한 교육복지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세부 프로그램 계획 수립 → 대상학생 발굴/보호자 동의 구하기/유형별 학생 지원/지역자원 활용/고위험군 대상 학생 사례관리 → 학생의 문제상황과 욕구 해결 시 사례관리 종료, 우수사례 공유 등 성과관리로 운영된다.

표1 - 다문화 +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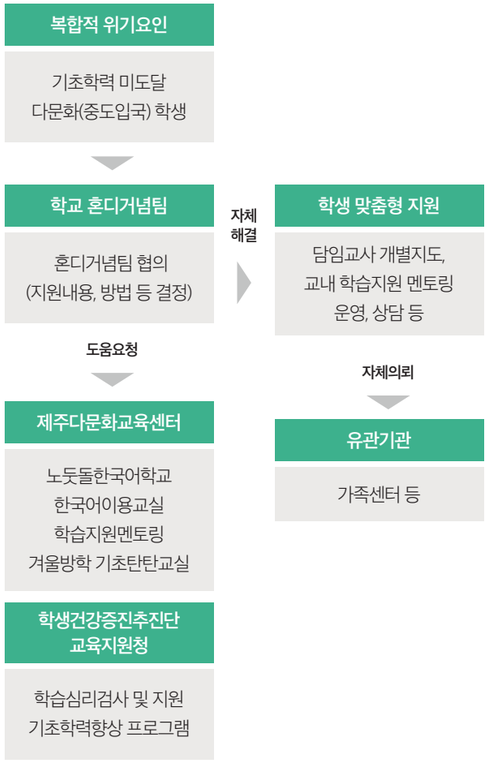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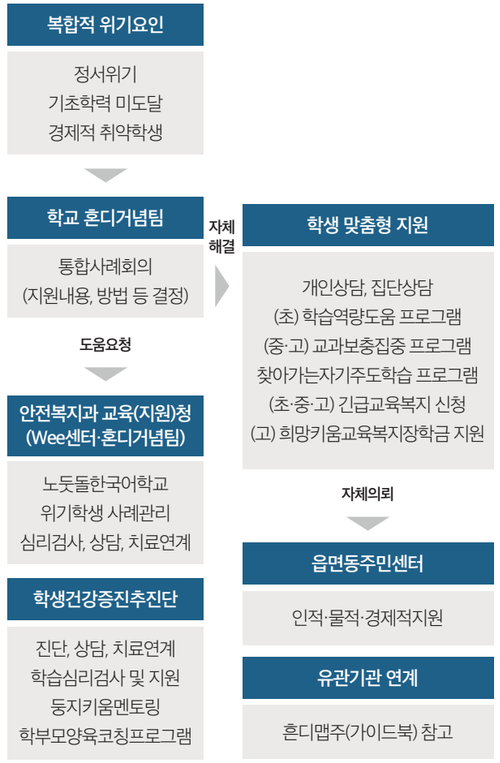


표2 - 정서위기 + 기초학력 + 저소득 학생 지원 흐름도



이러한 '혼디거념팀'에 대한 수요자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위기 학생들에게 따뜻한 안식처 제공,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바라는 선생님들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멘토로서의 역할, 학교와 마을, 마을과 가정, 가정과 학생 간의 든든한 이음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학교 혼디거념팀을 통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부모 1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의 관심도 92%, 학생의 적응력 향상에 도움 87%, 긍정적 변화에 도움 87%,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 85% 순으로 만족하고 있어, 위기 학생들의 교육소외 극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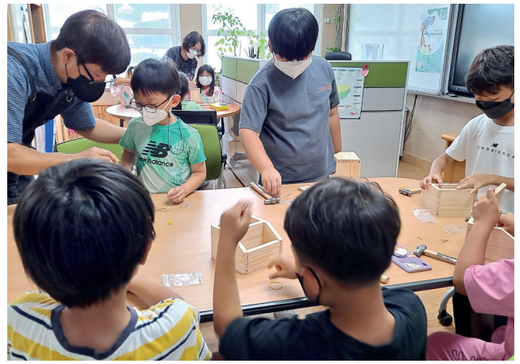
학교 혼디거념팀 구성원 5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학생 맞춤형 지원 여부 98%, 적응력 향상에 도움 97%, 긍정적 변화에 도움 96.5% 순으로 만족도가 높으며, 위기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는 선택이 아닌 '책무'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복지가 선택이 아닌 책무로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와 컨설팅 등을 통해 함께 협의하여 지원하며 구성원들도 더불어 성장하는 분위기 확산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신규 지정된 교육복지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모델을 마련해 나가고 학교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하여 학생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프로그램- 학급 내 심리프로그램 지원(음악치료)


학교 프로그램 - 지역기관 연계-(농협지원) 목공체험

이달의 교육뉴스

vol.488 2023 MARCH

01.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키로 했다.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의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과목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선도 교사단을 양성한다. 선도 교사단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맞춤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하며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게 된다. 교육부는 방학 중 집중 연수 등을 지원하여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을 ‘디지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술의 교실 적용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학교 300개교를 운영한다.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디지털 기기 및 학교 무선망도 지속 점검키로 했다.

디지털 교육 대전환에 대한 비전과 핵심정책을 국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열린 디지털 교육 비전 선포식
(2. 22. 정부세종컨벤션센터)

02. “다시 시작되는 학교, 안심하고 보내세요!”

교육부는 2월 22일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본격 정상화됨에 따라, 학기 초 즉시 적용·시행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학교-경찰서-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방·점검대책을 마련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시설 안전점검,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 학교 안전교육과 응급처치교육도 강화한다.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학 후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하는 등 건강한 학교 구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의 개편 등을 추진한다.

03.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만들어요!

교육부는 2월 22일 열린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학교 인접도로(통학로)에 보행 공간을 조성하고, 정부합동 통학로 안전점검을 체계화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았다.

먼저, 중앙부처,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 합동점검을 체계화한다. 보행로 확보와 관련해서는 인접도로(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하는 등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한다. 학교 부지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도로가 있는 양방 통행 구간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거나 시간대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04. 올해 국가장학금 4조 4,447억 원 지원

교육부는 2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총 4조 4,447억 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의 경우에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관련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0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RISE))를 구축하기 위해 3월 초까지 라이즈(RISE) 시범지역을 5개 내외로 선정하고, 2025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맞춤형 규제 특례, 일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주도로 재정지원 또는 지자체 연계 강화, 교육부와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통한 협약안 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등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2025년부터는 라이즈(RISE)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대학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편집실

"AI(인공지능)라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두려움을 버리고 서핑하라." 이는 AI와의 경험치를 늘려가면서 더 친숙해지라는 의미이다.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이 일자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화두가 될 'AI'와 그에 따른 '윤리의식'에 대해 동아대학교 김종욱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로봇 윤리학자_ 김종욱 동아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로봇에게 윤리란 필수 불가결한 일이죠"

Robot Ethicist

최근 로봇의 개발과 상업적인 이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로봇 윤리학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 로봇의 윤리의식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로봇의 행동반경이 넓어질수록 적절한 제재도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관련 법률을 만들거나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AI로봇윤리'는 AI와 로봇이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해결 기술을 다루는 분야이다. 앞으로는 인간과 로봇이 공생하는 사회가 될 것이므로 공학적인 설계와 개념만으로 이루어진 로봇의 폐해도 우리가 숙고해 봐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김종욱 교수가 2006년 동아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진행하고 있는 '인공윤리 개발 연구'는 향후 AI로봇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과 AI로봇의 윤리적 문제들의 현실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로봇인공지능 분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에 비해 로봇윤리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AI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향후 로봇윤리 전문가의 수요는 매우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업에서도 AI로봇이나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윤리성 등급이 매겨져서 판매될 때가 곧 도래할 것으로 바라봤다.

하나, 로봇(인공지능) 윤리학자로서 하는 일을 소개한다면?

로봇 윤리학자로서 로봇과 AI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AI로봇이 윤리적 기능이나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과

현재 개발 중인 로봇 Dori(좌)와 Misoro(우)

알파고가 상식을 갖추게 되면서 거의 전 분야로 확장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간은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창과 방패'에서 방패에 해당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관련하여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국내외 학술대회와 학회에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에 한국로봇학회에서 로봇윤리연구회를 설립했으며, 2018년에 로봇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로봇윤리헌장 개정안'을 발표했다. 작년에는 국제적 로봇윤리학회인 ICRES의 조직위원으로 활동했고, 국가 AI윤리포럼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AI체크리스트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동아대에 AI윤리기술센터(Center for AI Robot Ethics Technology, CAIRET)를 연구기관으로 개설했다. 이 센터는 국내 최초로 AI로봇윤리의 기술(연구개발, 인증, 컨설팅)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

둘, 로봇(AI)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박사과정인 2000년도에 일본 혼다 사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족보행로봇 아시모(ASIMO)를 출시했다. 당시 로봇공학계에서는 알파고와 같은 충격을 받았다. 이후 2004년에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님이 아시모에 버금가는 휴보를 만드셨고, 저도 태권V처럼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친구 같은 로봇을 만들고 싶은 꿈이 생겼다.

셋, AI로봇의 인공윤리 개발 연구를 진행하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AI와 로봇을 공학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이나 학계 혹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AI로봇의 윤리적 문제들의 현실성,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는 명석한 지능을 가진 로봇들과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텐데, 그때 엉뚱한 동작이나 말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개발자들이 미리 세운 원칙을 기반으로 운용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다. 가전제품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있듯이 윤리성 등급이 매겨져서 판매될 때가 올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제정한 AI윤리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에 동참했으며, 로봇윤리 인증에 대한 연구도 센터를 통해 꾸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넷, 로봇에 윤리적인 고려와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AI 또한 소프트웨어이고 빅데이터 안에도 잘못된 정보들이 담겨 있을 수 있어 가끔 오류가 난다. 그래서 챗GPT(인공지능 챗봇)가 기업의 중요한 판단을 하는 역할을 맡거나, 자율주행차의 코드를 작성했는데 문제나 사고를 일으켰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로봇윤리가 처음 제기된 것도 전쟁에서 AI가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인간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세워놔야만 향후 인류가 AI와 함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인권존중과 투명성, 책임성, 데이터 관리, 비편향성, 안전성 등이 AI윤리의 핵심 내용으로 성립된 것이다.

다섯, 로봇 윤리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다면?

인류의 역사는 자유, 정의, 진리 등의 가치에 기초하여 정반합의 원리, 즉 투쟁과 교류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알파고라는 AI가 등장했다. 이제 이 알파고가 상식을 갖추게 되면서 거의 전 분야로 확장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간은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창과 방패'에서 방패에 해당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즉, AI의 기능에 제한을 두고 AI의 학습 데이터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필터를 붙여 욕설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개발자와 전문가 그룹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섯, 로봇 윤리학자의 직업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로봇윤리학이라는 용어와 학문 분야는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해 아직 신생 분야이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도 전문가가 많지 않다. 하지만 챗GRT를 비춰볼 때 AI의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서 앞으로 산업계와 학계를 통한 로봇윤리 전문가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윤리는 AI, 로봇공학, 윤리학, 법학, 철학, 사회학 등의 모든 분야가 관련된 융합학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양과목처럼 관련 분야를 다양하게 공부하고 전공은 자신이 관심 있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일곱, 미래 진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앞으로의 시대는 AI로봇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자연스럽게 나뉘어 협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월등한 분야인 예술(K-Pop)과 인문학 분야(K-Drama)는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AI를 활용해서 예술에 접목하면 생산성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과목들도 충실히 해 두는 것이 본인의 이해 영역을 넓혀가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TIP BOX

로봇 윤리학자를 위한 진로 팁

로봇 윤리학자는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법률과 기준을 만드는 직업이다. 즉 로봇이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해결 기술을 다루는 연구를 진행한다. 관련 전공으로는 로봇윤리가 융합학문인만큼 로봇공학을 비롯하여 법학, 철학, 심리학 등 인문학 분야를 공부해도 유리하다. 로봇 윤리학자는 깊고 폭넓은 지식과 사회의 공신력이 필요한 직업이므로 높은 학력이 요구되며 후에 대학교수나 기업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관련 학회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글·사진 성진아 사회성·감성교육연구소 소장

3년 만에 벗은 마스크, 이젠 소통이 필요한 때

지난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자율에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이들이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학생이 아직 마스크를 쓴 채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3년에 걸쳐 얼굴의 절반 이상을 마스크로 가리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호흡뿐 아니라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온 아이들이 마스크 벗기를 꺼리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처음 맞이하는 새 학기에, 학생들이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며 공동체의 구성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마스크가 학생들 사회성 발달에 미친 영향

3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은 원격 등교와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졌고,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선생님, 친구들과 거리를 두며 극히 제한된 상호작용만을 해야 했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말없이 급식을 먹어야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소통 양과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관계 단절 현상은 더욱 심화하였다. 특히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먼 박사는, 인종과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으로 기쁨, 슬픔, 화, 두려움, 놀람, 혐오의 6가지 감정을 발견했는데, 이 감정들은 눈과 입 모양으로 쉽게 표현되고 구별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표정으로 쉽게 드러나는 감정도 마스크로 입 모양이 가려진 상태에서 눈동자와 눈썹의 움직임만을 보고 추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슬픈 감정을 느껴 눈꼬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미간을 살짝 찡그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사회성과 감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친구의 모습을 볼 때, 슬픈 친구를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의 표정으로 잘못 오해함으로써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입을 벌린 모습으로 표현되는 기쁨,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마스크로 입을 가렸을 때, 잘 표현되지 않아 인식이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인지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갈등 상황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관계는 더욱 힘들어지고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마스크를 벗지 않는 학생들의 심리

이렇듯, 소통의 어려움뿐 아니라 여러 불편함이 있음에도 학생들이 마스크를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하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10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얼굴을 가림으로써 얻는 '심리적 안정감'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문지혜 외, 2022)에 의하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한 학생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았다. 이 결과로 유추해 볼 때, 고등학생보다 급격한 신체와 생리적 변화를 겪는 중학생이 외모에 더 민감하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자기 외모에 불만족하여 얼굴을 가리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앞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겠다는 학생들은 외모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이는 곧 낮은 자존감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학교

앞에서 살펴본 마스크 쓰기가 가져온 학생들의 공감능력 저하와 관계 단절의 문제, 마스크를 벗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심리를 고려할 때, 새 학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먼저, 학생들이 교사와 또래 친구들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심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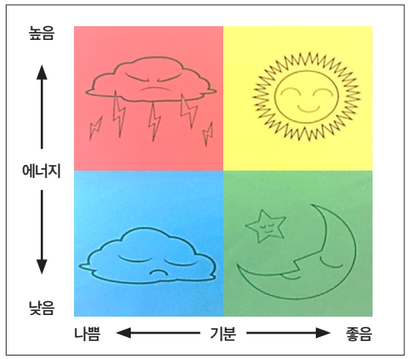
으로 안전함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교사와 또래 친구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① 친밀감과 소속감을 위한 공동체 놀이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급 공동체의 구성원이 달라지는 시기에, 처음 만난 서로를 알아가며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은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딱딱한 책상과 의자에서 벗어나 모든 학급 구성원과 함께 몸을 움직이며 긴장을 풀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놀이를 해보기를 권한다. 개인 간 또는 모둠별 경쟁을 유도하는 놀이가 아닌, 모두의 협력을 요구하는 놀이나, 학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체 시간이나 점심시간, 또는 학급회의 시간을 활용해 공동체의 친밀감과 소속감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동체 놀이를 해보자. 처음에는 교사가 선택한 놀이 활동을 하도록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거나 고안한 놀이를 하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② 나와 타인의 감정을 확인하는 감정날씨도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이 공감받을 때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고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주로 학업과 관련된 지식이나 재능으로 학생들이 평가되는 학교 분위기 속에서는, 소수의 학생만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대다수 학생이 낮은 자존감을 느끼게 되기 쉽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변하는 날씨를 확인하듯이, 학생들과 교사 모두가 매일 자신의 감정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인식하며 표현하는 활동을 해보자. 그림과 같은 '감정날씨도'(성진아, 2020)를 교실에 붙여 놓고,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체크하고 포스트잇으로 붙여 보도록 하자. 자신의 기분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몸의 에너지는 높은지 낮은지를 체크해 보자. 만약 기분이 좋고, 몸의 에너지도 높다면 감정날씨도의 노란색 영역에 표시하면 되고, 기분이 나쁘고 에너지는 높은 상태라면 빨강 영역에 표시하면 된다. 그리고, 왜 그런 감정 상태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자. 이렇게 감정날씨도를 활용하며 감정을 점검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읽어주고 표현하는 행위 자체로도 감정 조절의 역할을 하게 할 뿐 아니라, 학급 구성원 간에는 서로의 감정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③ 나와 친구의 자존감을 높이는 장점 찾기

새 학기를 시작하며, 모든 학생이 각자 자신의 장점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게 하고, 학기가 진행되면 친구의 장점을 서로 찾아주고 칭찬해 주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보자.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학생들일수록, 서로의 장점 찾아주기 활동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로 장점을 찾아주고 칭찬하고, 칭찬받은 친구는 그 칭찬에 감사하는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며, 학급 구성원들이 더욱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장점 찾아주기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도록 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사회성과 감성

3년에 걸쳐 진행된 코로나19의 영향과 규제에서 벗어나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 이때, 학교와 가정에서는 그동안 소통과 상호작용의 기회 부족으로 초래된 학생들의 대인관계 기술과 공감 능력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능력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진 사회성과 감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글·사진 김혜영 여행작가

강진에 유배 중이던 다산 정약용이
어느 날 제자들과 월출산에 올랐다.
하산길에 백운동 원림에 들러 하룻밤을 묵었다.
이곳에 반한 다산은 다산초당에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백운동 원림을 시와 그림으로 기록한 '백운첩'을 지었다.
다산의 마음을 사로잡은 풍경은 무엇이었을까.

다산 정약용과 강진 백운동 원림이 차茶로 맺은 인연

월출산 백운계곡에서 조선 시대 '비밀의 정원'과 만나다

백운동 원림(국가 명승)은 월출산 남쪽 백운계곡 산자락에 자리 잡았다. 조선 중기 선비 이담로(1627~1701)가 은둔하려고 지은 별장답게 동백나무, 비자나무, 대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우거진 계곡 숲길을 통과해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숲은 깊고 고요하며, 3월에도 짙푸르다. 어둑한 동백나무 터널을 지날 때는 비밀의 문을 통과하는 것 같다.

동백나무 터널을 지나자 '白雲洞(백운동)'이 새겨진 바위가 길목을 지키고 섰다. 바위 뒤로 백운동 원림의 돌담과 솟을대문이 보인다. 솟을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안뜰에 봄볕이 가득하다. 화단의 늙은 매실나무, 배롱나무, 감나무가 졸음에 겨운 듯하다. 산비탈을

계곡과 마당을 잇는 유상곡수가 마당을 가로질러 조성되었다.

깎아 만든 경사면에 소박하게 지은 초가 사랑채와 본채가 자리했다.

안뜰을 가로지르는 유상곡수(流觴曲水)에서 집주인의 감성과 취향이 엿보인다. 계곡물을 마당으로 끌어오기 위해 아홉 굽이 물길과 작은 연못을 만들고, 물 위에 술잔을 띄우며 풍류를 즐겼을 것 같다.

유상곡수의 정자에 앉아 볕을 쬐고, 담장 쪽문을 통해 정선대가 있는 언덕에 오른다. 정선대 앞에 서니 정면에 백운동 원림 전경이 펼쳐진다. 불꽃같이 뾰족뾰족한 월출산 옥판봉을 병풍 삼고, 울창한 계곡 숲을 정원처럼 거느린 명당이다. 이담로가 이 터를 낙점한 이유를 알겠다. 백운동 원림의 소문을 듣고 조선 중·후기 문인들이 찾아왔는데, 다산 정약용(1762~1836)도 그중 한 명이다.

강진 차 문화의 산실,
차 애호가 다산의 제다법 전수

1812년 가을, 다산은 이담로의 5대손이자 백운동 원림의 4대 주인인 이덕휘(1759~1828)의 초대를 받아 백운동 원림에서 하룻밤 묵고 돌아왔다. 미련이 남은 다산은 백운동 원림 12경을 시로 읊고, 초의에게 '백운동도'를 그리게 하여 '백운첩'을 완성했다. 다산이 이덕휘에게 선물한 백운첩이 대대로 전해졌다. 만약 2001년에 '백운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백운동 원림은 지금까지도 '비밀의 정원'으로 남지 않았을까.

백운첩의 백운동도와 백운동 원림의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본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기세등등한 옥판봉, 빽빽한 동백숲, 담장 밖 대숲과 야생차밭, 유상곡수의 물길이 여전하다. 다산 일행이 이곳에 처음 방문했던 날을 상상해본다. 다산은 제자들과 백운동 원림 대밭에서 생산한 죽로차를 마시고, 유상곡수에 술잔을 띄우고, 정선대에 올라 월출산 위로 뜬 달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하얀 구름 되어 올라간다'는 백운계곡에서의 하룻밤이 꿈결 같았으리라.

차 애호가인 다산은 이날의 인연으로 백운동 원림에 틈틈이 방문해 이덕휘와 차담을 나누고, 아버지 옆에서 수발들던 9살 이시헌(1803~1860)을 막내 제자로 받아들였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는 백운동 원림 5대 주인이 된 이시헌에게 서신을 통해 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시헌은 매해 봄에 차를 만들어 스승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보냈다. 이시헌이 후손들에게 전수한 다산의 제다법은 일제강점기 이한영에게 이어져 국내 최초의 차 상품인 백운옥판차가 탄생했다. 지금은 이한영의 고손녀가 운영하는 월남사지 근처 백운차실에서 백운옥판차를 맛볼 수 있다.

월출산 아래,
광활하게 펼쳐진 차밭을 따라 걷는다

백운동원림 대숲 길을 따라 200m쯤 걸어 올라가면, 월출산 자락에 아모레퍼시픽 소유의 광활한 차밭(설록다원)이 기다린다. 옛날부터 월출산 주변 사찰을 중심으로 차나무를 심었던 곳이다. 숲에 숨은 백운동 원림을 본 뒤라 탁 트인 풍경이 더욱 싱그럽게 느껴진다. 차밭에 참새 혓바닥 같은 새순이 돋으려면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마음이 벌써 동동 달뜬다.

차밭 아래 월남마을에는 고려 진각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오는 월남사의 터가 있다. 휑한 폐사지에 보물로 지정된 백제 양식의 삼층석탑과 진각국사비만 남아 옛이야기를 들려준다.

월남사지에서 3km 떨어진 무위사는 신라 원효가 창건했다는 사찰로서 국보 2점과 보물 4점을 소장하고 있다. 국보인 극락보전과 아미타여래삼존벽화, 보물 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선각대사탑비 등은 불교 미술의 백미를 보여 준다. 무위사에서 백운동 원림, 설록다원, 백운차실을 거쳐 월남사지까지 이어 걷는 도보여행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겠다. 약 3km 코스다.

1 무위사 삼층석탑과 국보로 지정된 극락보전
2 국보로 지정된 무위사 극락보전의 아미타여래삼존벽화
3 백운동 원림 위쪽에 자리한 설록다원. 월출산 봉우리가 또렷하게 보인다

백운동 원림

주소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안운길 (100-63)
문의 061-430-3114
관람 시간 연중무휴
관람료 없음
찾아가는 길
월출산다원주차장 또는 안운마을의 안운주차장에서 걸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안운마을 쪽 진입로가 더 운치 있다. 백운동 원림을 내비게이션에 검색하면 월출산다원주차장으로 안내한다.

글_신정근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유학대학원장)

갈등을 관리하는 최선의 길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족·세대·진영·국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갈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기도 전에 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로감을 느끼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갈등 없는 세상'을 꿈꾸게 된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희망 사항이다. '갈등 없는 세상'을 꿈꿀 수 있지만 과연 인간 사회에 갈등이 없을 수 있을까?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인류의 역사 초기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비교적 약하거나 거의 없는 상태가 있었다. 경쟁이 없는 상태라 갈등이 생길 원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왕(聖王)처럼 영적 지도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범을 제시하면 다른 사람은 그걸 모방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때 대부분 사람은 문자를 해독할 줄도 모르고 문제 상황을 풀어가는 굳이 독자적인 방안을 생각해내려고 해도 쉽지 않았다.

철기시대 이후에 사람은 성왕의 모범을 자신의 답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 독자적인 주의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전국시대 묵자는 이러한 상황을 십인일의(十人一義)나 천인일의(千人一義)에 대비해서 십인십의(十人十義)나 천인천의(千人千義)로 표현했다. 전자는 사람이 열이든 천이든 하나의 주장을 가진다는 반면에 후자는 사람이 열 명 있으면 열 가지 주장이 있고 천 명 있으면 천 가지 주장이 있다는 말이다. 묵자는 '갈등'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지만, 속뜻으로 보면 늘어가는 갈등에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갈등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풀어가려면 구분해야 할 지점이 있다. 즉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는 현상'과 '갈등을 풀어가기가 어려운 과제'를 구분해야 한다.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있다는 사실은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제는 사회마다 있는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이 문명화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갈등을 인정하고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갈등의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을 관리하는 세 가지 원칙

갈등이 인간 사회에서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은 갈등이란 말 자체에 그대로 드러난다. 갈등(葛藤)은 각각 칡과 등나무를 가리킨다. 칡과 등나무는 자라면서 뻗어나가는 생태가 상반된다. 즉 칡은 시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뻗어나가고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뻗어나간다. 이처럼 생태가 다른 두 나무를 한 곳에 심어두면 서로 얽히고설키게 된다. 이처럼 갈과 등이 함께 자란다는 것 자체는 서로 풀 수 없는 관계로 악화될 뿐만 아니라 피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 지점에서 갈등은 꼭 갈과 등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갈등의 해법은 제일 먼저 서로 다른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나와 같은 편만 있고 상대가 없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은 기대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갈이 없으면 등이 있을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나만이 옳고 상대가 그르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오늘날 '아시타비(我是他非·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말)'라는 신조어로 말하지만, 오래전부터 노자(老子) 등은 '자시(自是)'라고 명명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만큼 시야가 좁아진다. 자시는 심리적 위안을 줄지언정 결국 모든 것을 환히 비추는 전체의 안목을 갖지 못한다. 진리는 나만이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찾을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흥정이다. 누구라도 합리적인 주장을 펼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점을 주고받는 숙고와 조정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 단계에서 생각의 흥정을 하면 서로가 만족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은 갈등을 관리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글·사진 송민희 명예기자

2023 학교 환경교육 국제 콘퍼런스

기후위기 최선의 대처법, 교육

장동선 박사 사회로 진행된 환경교육 실천 토크콘서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한 '2023 학교 환경교육 국제 콘퍼런스'가 지난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은 삶과 교육을 논의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행사의 포문을 연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우리 모두 지구 생태환경을 잘 아끼고 보존하여,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물려줄 책임이 있다."라며, 교육기본법 제22조 2(기후변화환경교육)가 신설됨으로써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 전환교육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강조했다.

박창원 교육부 인성예술체육교육과 과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희망은 교육에 있음을 깨닫고 전 세계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른뿐 아니라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호주·핀란드의 환경교육

첫 번째 세션에선 '현 단계 학교 환경교육의 도약을 위한 의제'란 주제로 이선경 교수(청주교육대학교), 앨런 리드 교수(호주 모나쉬대학교), 에시 아르니오 린나부오리 교수(핀란드 템퍼레대학교)가 국가별 학교 환경교육과 방향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통으로 강조한 사안은 전 사회적인 참여와 연대의 필요이다.
이에 대한 대응을 교육에서 찾길 희망하며 나아가 학교에서 환경교육의 재발견을 기대한다.

한국, 학교 전체적인 접근 필요 이선경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학교 교육과정과 환경교육'이란 주제 발표에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의 방향성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환경교육의 방향, 고려 요소, 접근 방법 등의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주, 학교는 생태 환경교육의 장 앨런 리드 교수는 "호주에서는 학교를 생태 환경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환경보전 실천과 동물의 서식지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을 배운다. 그는 "학교에서 환경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피드백할 수 있다."라는 이점을 내세웠다. 또,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사고를 위해 친환경 에코 다이어리나 커뮤니티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과정도 우리가 역량을 갖추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핀란드, 전체론적 교육 모델 제안 에시 아르니오 린나부오리 교수는 전체론적 기후변화 교육 모델로 '자전거 모델'을 제안했다. 자전거 모델은 선행연구에 기반하며 지식, 사고력, 가치, 정체성, 세계관, 행동, 동기부여, 참여, 운영장벽, 미래지향성, 희망과 그 밖의 8가지 감정 요소로 구성된다. 그는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잘 작동해야 효과적인 기후변화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교육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이 함께 기능해야 하는 하나의 통합된 개체로 보는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 프로젝트 공유 & 실천 다짐

두 번째 세션에선 '학교 환경교육의 실천, 미래교육의 새 길을 열어가다'란 주제로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공유했다. 학생들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 사례를 통해 환경 시민으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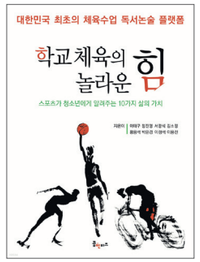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선 '미래의 교육과 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다짐'이란 주제로 장동선 박사(궁금한뇌연구소 소장)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교사와 학생들은 한자리에 모여 '나와 공동체를 이어준 환경교육 실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다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 사례와 환경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화합의 장 역할을 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통으로 강조한 사안은 전 사회적인 참여와 연대의 필요이다. 이에 대한 대응을 교육에서 찾길 희망하며 나아가 학교에서 환경교육의 재발견을 기대한다.

글 이경화 명예기자

REPORT
01.

저자 인세 기부, 체육 선생님들의 선한 영향력



"3년 뒤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울시 용산구에 자리한 장발장 은행을 찾아 <학교체육의 놀라운 힘>(꿈엔들) 저자 인세 160만 원을 기부한 선생님들이 한목소리로 말했다. 김소정 교사(양평 양일중학교), 이태구 교사(고양 백신중학교), 서광석 교사(포천 이동중학교)는 공동 저자 대표로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한 박은경(용인 상갈중학교), 이정석(용인 포곡중학교), 이용진(수원외국어고등학교), 정진영(경기과학고등학교), 황용석(포천 이동중학교) 교사도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2년간 모은 인세, 기부하는 날!

이태구 교사는 "출판사에서 인세가 어느 정도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뻤다. 공동 저자들과 인세는 장발장 은행에 기부하기로 다짐했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광석 교사는 "책을 집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힘든 작업의 결과물을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장발장 은행에 기부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교사도 "처음 기부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집필진이 모두 흔쾌히 동의했는데 2년 만에 인세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발생할 <학교체육의 놀라운 힘>의 미래 인세도 전액 장발장 은행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 교사는 기부 의사를 지키기 위해 책날개에 인세 기부를 밝혀 놓았다며 더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장발장 은행은 생계형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야 하는 빈곤층, 취약 계층에게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사회단체이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누나와 조카를 위해 빵을 훔쳤다가 감옥에 가게 된 인물이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장발장 은행의 근본 취지는 벌금제도 개혁"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하루빨리 벌금제도 개선이 이뤄져서 우리 은행이 문을 닫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사는 "학생들의 배움과 삶이 연결되는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기부를 계기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다짐했다.

스포츠에서 배우는 삶의 가치 전하다!

좋은체육수업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2021년 발간한 <학교체육의 놀라운 힘>은 2006년 연구회가 처음 출범할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민을 녹여낸 책이다. 연구회는 체육교과에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한 교사들이 모여 체육수업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연구와 토론을 계속해 왔다. 체육교과에 독서교육을 융합해 적용하는 인문적 스포츠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 8명의 교사들은 <학교체육의 놀라운 힘> 집필을 위해 공을 많이 들였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체육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삶에 투영되는 사례를 찾아 학생들이 글을 쓰게끔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며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며 책을 썼다."라고 말했다.

체육수업 독서논술 플랫폼을 표방하는 이 책은 열정, 규율, 이타심 등 주제별로 30개의 영상 자료를 QR로 탑재하고 있다. 교사에게는 주제별 적합한 수업 방법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는 현장감 있는 읽기 자료와 주제별 생각 문제, 논술 문항을 함께 수록했다. 이 같은 구성으로 체육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이 책을 통해 손쉽게 접근해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책에서는 스포츠가 청소년에게 알려주는 10가지 삶의 가치를 부제로 정하고 있다. 집필진들은 학생들이 학교체육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경험한 수많은 가치를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토론하며, 공감하는 글쓰기로 표현하면서 바람직한 인격 형성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했다.

REPORT
02.

스팸 사태로 되돌아보는 다문화교육

“스팸은 보내지 말아 주세요”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숨진 사람이 5만 명을 넘었다. 이번 강진으로 튀르키예에서만 약 53만 명이 재난 지역에서 대피했고 시리아에서도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현재까지 건물 17만 3천 채가 붕괴하거나 심각하게 부서진 것으로 집계했다. 이로 인해 190만 명 이상이 임시 대피소나 호텔, 공공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튀르키예는 이들을 수용할 컨테이너 정착촌 130곳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이재민들에게는 구호 물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낸 ‘스팸’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 주한 튀르키예대사관은 더 이상 개인이 보내는 식품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식품을 튀르키예 구호 식품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튀르키예인들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이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햄의 주재료인 ‘돼지’는 금지된 음식이다.

이렇게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을 ‘하람 푸드’라고 하며, 무슬림에게 허용된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한다. 무슬림이 먹을 수 없는 하람 푸드에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돼지에서 추출된 젤라틴 또한 포함된다. 또한 돼지고기가 닿은 식기류로 조리하는 것도 하람이 된다. 이에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에는 아예 출입하지 않는다.

다른 민족, 다른 종교 이해하기

지진으로 인하여 가족과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보낸 것은 분명 배려 없는 행동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은 스팸을 보낸 개개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는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이 근본적 원인은 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나라들을 보면 공통으로 다민족 다문화를 수용하며 성장해왔다. 우리나라 또한 다문화 가정, 외국인의 유입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상과 달리 국민의 의식 변화는 속도가 더딘 편이다. 그 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금까지 주로 애국, 애족에 초점을 맞춰 왔다. 단일민족으로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는 열과 성을 다하였으나 다른 민족을 이해하고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 애국이 세계화를 위한 가장 첫 번째임은 분명하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다음으로 나아가기에 어려울 것이다.

이슬람교에 대해 배우지 못한 성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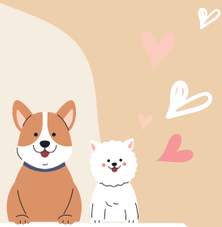
이번 스팸 사태가 그 증거라고 본다. 지금의 성인들은 학창 시절에 이슬람교에 대해 자세히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그 ‘배우지 못했음’이 이러한 실수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큰 목표가 ‘배려’에 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개인과 개인 간의 배려뿐 아니라 문화와 문화 간의 배려 차원으로 높여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다문화교육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이전에 비해 매우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실천하는 상황이다. 많은 교과의 교과서에는 다문화를 성취기준 중 하나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각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하나로 계획하여 다문화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현재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다른 문화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개방된 사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성세대들의 다문화에 대한 의식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 많은 언론과 단체에서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또한 그 열린 마음을 강조하여 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댕댕이’는 ‘커엽’다



언어는 자의적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한 네 발 달린 갯과의 포유류가 ‘개’라고 불리는 것에 어떤 필연적 관계도 없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dog’, 독일어로는 ‘Hund’처럼 의미와 기호가 절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속이 아니라면 ‘펜’을 꼭 ‘펜’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앤드루 클레먼츠의 <프린들 주세요>라는 동화에서는 ‘펜’을 ‘프린들’로 부르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선생님은 주인공에게 바른 말을 사용하라며 벌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럴수록 ‘프린들’은 더 유행합니다. 대한민국의 10대들도 신조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글 파괴라는 걱정도 많지만, 한편으로 10대들의 은어 사용은 그들만의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한 야구 갤러리에서 유명해진 언어 유희적 표현인 ‘야민정음’은 10대를 만나 크게 변형, 확산, 확장된 사례입니다. 글자 여러 개를 압축하는 경우, 글자를 180도 회전하는 경우, 얼핏 보면 헛갈려서 한글 자모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곰’은 ‘문’으로, ‘멍멍이’는 ‘댕댕이’, ‘귀엽다’는 ‘커엽다’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2023학년도 수능 사회문화에 ‘띵작(명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신조어 사용 세태가 지문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leet’가 비슷한 사례입니다. ‘leet’는 알파벳과 비슷하게 생긴 모양, 숫자 등을 이용하여 암호처럼 해독해야 이해할 수 있는 해커들이 만들어 낸 언어입니다. ‘미국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은어가 있다면, 번역 서비스도 제공해 줄까’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언어를 번역해주는 파파고에서 ‘댕댕이’라고 입력하면 ‘dog’가 아닌 ‘clog’라고 번역되더군요. 점심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한 친구에게 파파고 번역 결과를 보여줬더니 신기해하면서도,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글 파괴라는 우려는 잠시 스치는 바람이 아닐까요?

저자소개

황왕용 선생님은 전남 광영고등학교에서 사서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제자들과 언어를 매개로 한 소통에 관심을 갖고 수업하고 있다. 10대들이 자주 쓰는 말(급식체)과 부모 세대가 사용하는 말(도시락체)의 만남을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있다. 저서로는 <급식체 사전>, <궁금하지만 물어보기엔 애매한 학교도서관 이야기>, <괜찮아, 나도 그래> 등이 있다.

교육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갑니다!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2.22)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폭력 엄정 대응 및 예방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 학교-경찰-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 강화
- 등·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불법촬영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 학생·학교 중심의 맞춤형 예방·점검대책 마련
-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점검체계 구축

사고 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 시설 안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학교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강화

» 학기 시작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신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등 점검 신속히 추진

»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합동점검 실시
-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

»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 체험시설 연계 안전교육 실시 및 실습형 재난안전 훈련 확대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 방역 체계 현실화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지원 확대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 확대

»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 일부 방역체계 조정 및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 운영

» 학생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정신건강 치료비·진료비 지원
- 위(Wee) 프로젝트를 통한 상담 지원

» 마약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전문 강사 지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갑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및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제공

»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및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